PRESS RELEASE 배포일자: 19.05.09

나이벡, 2019년 1분기 매출액 17억원.. 전년比 43.7%↑

▶ 펩타이드 기술력을 기반한 지속적인 기술이전 및 제품 수출 확대 예정

[2019-05-09] 펩타이드 전문기업 나이벡(대표이사 정종평)이 2019년 1분기 실적에 대해 공시를 통해 09일 밝혔다.

나이벡은 1분기 매출액 17억 원, 영업손실 7억 원, 당기순손실 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됐으나 매출액은 43.7%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 주요고객사의 주문량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 사업 매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펩타이드 기반 사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으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관리종목 지정 이슈에 대해 "나이벡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으로 관리종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이벡은 최근 펩타이드를 기반한 골다공증 치료제 및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 및 전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신약 후보물질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이벡 관계자는 "대규모 공급계약 수주 등 지속적인 실적개선과 함께 펩타이드 기술개발 및 인허가 또한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품 수출국가 확대 및 신약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벡 실적

(단위: 백만원)	1Q19	1Q18	YoY
매출액	1,676	1,167	43.7%
영업이익	(660)	(389)	적자지속
당기순이익	(459)	(584)	적자지속